

지역 메아리



김제지평선축제 지원 자원봉사단 발대식 개최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벽골제 일원에서 열리는 제19회 김제지평선축제 성공을 기원하는 자원봉사단 발대식이 지난 14일 교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김제시자원봉사종합센터(센터장 정창섭) 주관으로 열린 이날 발대식에는 이건설 시장과 나병문 시장의, 최병철 시장을 비롯한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해 자원봉사 의지를 재확인하고 김제지평선축제의 성공개회를 다짐했다. 김제지평선축제 홍보 영상을 시작으로 자원봉사자 결의문 낭독과 축제의 기본 계획, 분야별 임무고지 등 축제 전반적인 PT 설명에 이어 분야별 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오는 9월 20일부터 9월 24일까지 5일간 열리는 제19회 김제지평선축제에서 셔틀버스 안내, 행사장 안내 및 프로그램 지원, 교통질서 유지, 환경 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무허가 입산 집중단속

완주군이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고 주민 재산권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15일 완주군은 산행인구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입산행 불법 굴채취 및 무허가 입산행위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10월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입도면, 휴양림 등 비교적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과 관광버스 등에 대하여 집중 감시활동이 전개된다. 특히 주말과 휴일에는 채취자 입산 시간과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입산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한다. 예방 및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외지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모악산, 대둔산, 고산 휴양림 등 완주군 주요 관광 명소와 동상면 일원에는 '허가없이 남의 산에서 입산물을 굴채·채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배부하고, 한 차례를 설치해 경각심을 고취한다. 현행 산림관련법은 입산물을 산림보호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평선 투자유치 홍보부스 운영

20일부터 24일까지 김제지평선축제 기간 중... 서한문·홍보용 전단지 제작

김제시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김제시 벽골제에서 개최되는 5년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제19회 김제지평선축제' 기간 중에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투자유치 홍보부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홍보부스 운영은 시행사인 지앤아이(주)와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며 새만금 중심부에 위치한 최고수준의 입지 여건, 저렴한 분양가(39만 8,000원/3.3㎡), 중소기업친화적 '지방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지정' 등 그동안 분양과정에서 지평선 산업단의 투자 매력으로 부각되었던 내용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IT융합농기계센터와 뿌리산업 PP센터, 특장차 자기인증센터의 기능을 적극 홍보해 지역육성 사업인 농기계클러스터 및 뿌리산업분야와 특장차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로 특화된 전문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제고시킨다는 방침이다. 90만평의 규모로 조성된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는 2015년 4월 준공 이후 현재까지 입주 1호기업인 (주)일강과 프랑스 외투기업인 로알캐년을 비롯한 57개 기업이 김제자유무역지역과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여 현재 30개 기업이 가동 중이며, 27개 기업은 건축공사와 설계준비 등으로 활기 차게 움직이고 있는 등 70%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어 조기 분양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이건설 시장장은 "그동안 김제지역은 농업중심으로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지속적으로 기업투자가 위축되어 왔으나 지평선산업단과 자유무역지역 준공이후 전국 최초의 백구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으로 산업 다변화와 산업경제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

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지평선산업단지가 그 변화의 시작임을 알리고 최근에 이르러 제2산단 조성의 필요성도 검토 할 시점에 왔음을 피력하고 "김제를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제시 투자유치과 기업유치팀에서는 '김제'가 전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최적의 도시임을 알리고, 지평선축제 기간 중 기업인의 축제장 참여를 희망하는 시장 서한문과 산업단지를 전국에 알리기 위한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하여 국내 2만8,000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난주까지 발송을 마쳤으며 축제기간 중 홍보부스의 내시 있는 운영과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으로 산단 분양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금안농협 흰찰보리 일본에 첫 수출

17일 부산항에서 출발 18일 입항 일본 곳곳에 소비될 예정

김제 금안농협협동조합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수출 확대 정책 추진에 발맞추기 위해 금안농협 미곡처리장에서 흰찰보리 14톤을 일본에 첫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평선의 고장 김제 들녘의 시원한 바람과 깨끗하고 기름진 옥토에서 생산되는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김제의 흰찰보리는 영양분이 풍부하고 품질이 우수하여 김제의 농식품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NH무역과 협약을 맺고 수출되는 이번 흰찰보리는 17일 부산항에서 출발해 일본 시모노세키항으로 9월 18일 입항하여, 일본 곳곳에서 소비될 예정이다. 금안농협은 앞서 2016년에는 호주에 17톤, 2017년에는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에 45톤 가량의 쌀을 수출했으며 김제시 황금들녘의 농

산물을 세계로 널리 알리는데 이바지해 왔으며, 이번에는 국내 최초로 흰찰보리 수출이라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NH농협무역 임원 및 금안농협 조합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상차식에서는 금안농협의 첫 보리수출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지며 또한 앞으로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등 수출확대를 염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고규근 유통식품과 과장은 "오늘 첫 보리 수출을 계기로 우리 김제시의 농산물이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고 더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길 바라며, 수출확대가 김제의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차원에서도 최대한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연료전지 지게차용 수소충전소 시설기준 완화 건의

행안부, 완주군 제안 규제개혁 현장 방문

행정안전부가 완주군이 제안한 규제개혁 건의에 대한 현장의견 청취를 위해 관내 기업을 찾았다. 완주군이 제안한 규제개혁 건의는 '연료전지 지게차용 수소충전소 시설기준 완화'다. 지난 15일 완주군은 행안부가 봉동을 소재 연료전지 생산기업 (주)프로파워(대표 고병욱)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전라북도 규제개혁팀 및 완주군 규제개혁팀, (주)프로파워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주)프로파워는 기술개발을 통해 공장내에서 운행하는 실내 물류운반차(지게차)에 탑재하는 수소연료전지(PEMFC) 파워팩 등을 제작했음에도 지게차를 충전할 수소충전소 시설기준이 상용화에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기업 내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사용을 위한 수소자동차 충전시설기준완화를 적용한 별도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가 이뤄졌다.

소병주 완주군 기획감사실장은 "해당 기업으로의 해결을 위해 행안부 및 전라북도의 협력 하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다"며 "이 규제애로가 해결되면 국내 기업들이 연료전지 지게차 사용이 가능해져서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매출 신장 및 고용 창출 효과까지 연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관내 기업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애로에 대한 건의를 접수받고 있다. 온라인(완주군홈페이지-행정규제신고)과 오프라인(완주군규제신고센터 063-290-2831, 2833)을 통해 가능하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소프트웨어 코딩지도사 양성교육 실시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완주군이 소프트웨어 코딩지도사 양성교육을 시작한다. 지난 15일 완주군은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소프트웨어 코딩지도사 양성교육' 과정을 군청 5층 전산교육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격증 취득과 구직을 원하는 주민 20명을 선발해 실시하는 이번 교육과정에는 50여명의 신청자가 몰려 코딩 열풍을 실감케 했다. 교육은 주말을 제외한 매일 오전 9

시부터 13시까지 4시간 동안 총 36차 시로 진행되며, PC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로보틱스 운용 및 교수, 지도와 승법 등의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교육과목에 자격증 취득과정을 병행하고 완주군 일자리 지원센터와 함께 자격증 취득자의 구직 및 취업 알선을 연계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직업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직

업교육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코딩 교육이 추가됨에 따라 증가하는 방과후 지도자 수요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우리군은 4차산업시대와 구직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일자리를 교육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코딩(Coding)이란 컴퓨터 프로그램의 다른 말로써, C언어, 자바, 파이썬 등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국가예산확보 위한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개최

김제시(시장 이건설)는 열악한 재정 여건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15일 이후천 부시장 주재로 국소장, 실과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2020년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지난해 보다 1개월 가량 앞당겨 개최하였다. 김제시는 8월말까지 국소별로 자체 보고회를 통해 참신한 신규사업들을 발굴하였고 금번 1차 보고회를 통해 지도자 수요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우리군은 4차산업시대와 구직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일자리를 교육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코딩(Coding)이란 컴퓨터 프로그램의 다른 말로써, C언어, 자바, 파이썬 등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이와 별도로 대산공약 이행을 위해 전북도에서 추진중인 각종 용역 등에 적극 공조하여 지역공약사업들을 구체화하고 추가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신규 발굴된 사업들은 사전행정 절차 이행과 국가예산확보 활동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후천 부시장은 "2019년 국가예산 확보 사업은 본격 예산 시즌이 시작되기 전인 내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발굴보고회를 통해 정부정책에 부합하고 지역성장 동력이 될 신규사업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정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 및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하는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것이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행정농산물 판매소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산업과
 063-430-2951